2024년 12월 1일
대림 제 1주일

NO_2165 _____

하늘 마음

엔리케 시모네의 <그가 그로 인해 우시다>

입당송

하느님, 당신께 제 영혼 들어 올리나이다.
저의 하느님, 당신께 저를 맡기오니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소서.
원수들이 저를 보고 좋아라
날뛰지 못하게 하소서.
당신께 바라는 이는
아무도 수치를 당하지 않으리이다.

제1독서 예레 33,14-16

화답송

◎ 주님, 당신께 제 영혼 들어 올리나이다.
○ 주님, 당신의 길을 알려 주시고
당신의 행로를 가르쳐 주소서.
저를 가르치시어 당신 진리로 이끄소서.
당신은 제 구원의 하느님이시옵니다. ◎
○ 주님은 어질고 바르시니
죄인들에게도 길을 가르치신다.
가련한 이 올바른 길 걷게 하시고
가난한 이 당신 길 알게 하신다. ◎
○ 주님의 계약과 법규를 지키는 이들에게
주님의 모든 길은 자애와 진실이라네.
주님은 당신을 경외하는 이와 사귀시고
당신의 계약 그들에게 알려 주신다. ◎

제2독서 1테살 3,12—4,2

복음환호송

◎ 알렐루야.
○ 주님, 저희에게 당신 자애를 보여 주시고
당신 구원을 베풀어 주소서.
◎ 알렐루야

복음 루카 21,25-28.34-36

영성체송

주님이 복을 베푸시어,
우리 땅이 열매를 내리라.

발행 | 천주교 서울대교구 청소년국 중고등부 (www.foryouth.or.kr) 서울시 종로구 대학로 156 가톨릭 청소년 회관 107호
발행인 | 박재득 테오도로 신부님 구독신청 | 가톨릭 출판사 (대표전화 _ 1544 - 1886)
미디어부 | 문혜지 아셀라, 이동호 토마스, 김해리 헬레나, 양유정 미카엘라, 고유진 안나, 안기환 미카엘, 허인화 세라피나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생명을 계속 유지시켜야 하나요?

안락사는 언제나 나쁩니다. 그렇지만 교회가 어떤 대가를 치르고서라도
사람을 계속 살아 있게 해야 한다는 입장을 취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맥락에서, 사용할 수 있는 치료의 종류를 신중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일반적인 돌봄과 특수한 돌봄이 있습니다

1 일반적인 돌봄

일반적인 돌봄은 음식, 수분, 약, 상처에 붕대 감는 것, 어쩌면 산소 공급까지 포함합니다. 이런 유형의 돌봄은 생명 유지를 위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러한 종류의 돌봄을 중단하는 것이 적극적인 안락사와 마찬가지인 이유입니다. 아무리 죽음이 임박해 보인다 해도, 환자에게 해롭지 않는 한에서 일반적인 돌봄은 계속되어야 합니다. 그렇지만 의료적 돌봄은 환자가 치르는 비용과 어려움을 고려해야 합니다. 어떤 치료는 값비싸고 위험하거나 신체의 다른 부분에 해를 끼칩니다. 그러한 특수한 치료를 늘 제공해서는 안 됩니다. 이러한 치료를 하지 않을 때 환자가 죽게 된다 하더라도, 그 치료를 중단할 수 있습니다. 의사와 환자 또는 환자를 대신해 결정을 내리는 이들은 이러한 돌봄을 중단할지 결정할 때 모든 요인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이렇게 할 때에는 죽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막을 수 없는 죽음을 받아들이는 것이다.”(《가톨릭 교회 교리서》 2278항)

2 일반적인 돌봄과 특수한 돌봄의 차이

일반적인 돌봄과 특수한 돌봄이 어떻게 다른지는 다음 이야기가 잘 보여 줍니다. 한 젊은 여인이 부유한 자기 할머니가 욕조에서 미끄러져 머리를 부딪친 모습을 봅니다. 이때 할머니를 구할 수 있지만, 그 여인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아마도 유산 때문이겠지요. 누구나 이 젊은 여인이 할머니의 죽음에 책임이 있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 여인이 행동한 방식은 환자에게 일반적인 치료를 거부한 것에 비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가 굶주린 악어가 우글거리는 강에 떨어졌다면 사정은 다릅니다. 사람들은 그 여인이 할머니를 구하러 강물에 뛰어들지 않았다고 해서 그녀를 탓하지 않을 것입니다. 할머니를 구하려다가 자기 목숨을 잃을 위험이 높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이유로 의학적 치료를 제공하지 않거나 중단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3 소생술

환자에게 소생술이 필요한 경우 병원에서 소생술을 시행할 것인지를 묻는 질문을 종종 받습니다. 하지만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치료를 거부하는 것이 윤리적으로 용납될 수 있을까요? 통상적으로 소생술은 비용이 많이 들거나 복잡한 치료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특수한 치료가 아닙니다. 다른 한편, 고령에 병까지 깊은 환자에게 소생술을 시행함으로써 자연적인 죽음을 막는 것은 고사하고 호전될 가능성도 없으며 영구적인 손상만 입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살아서 건강을 회복할 가능성을 따져 보고 환자나 환자를 대신해 결정하는 사람들이 윤리적 선택을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개별 사례마다 신중하게 결정을 해야 합니다.

※이 글은 《하느님과 트윗을》(2016년, 가톨릭출판사)에서 발췌한 내용입니다.

Vol_1201

날으는 CYA

염현아 안젤라 | zzz-h@hanmail.ne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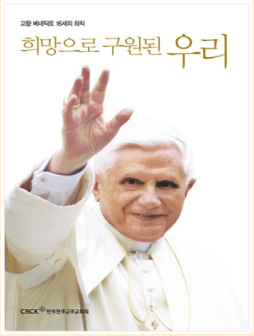
시험이 낼모레인데 웃음이 나오냐?
이번시험 진짜 잘봐야 한다고~
나도 학점 관리 해야해.
잘해야 장학금 받고, 취업도 해야하고
할게 넘 많아. 걱정이 태산이야.
걱정
걱정
까악
괜찮아요?
오H 미리 말 안했어! 자기들끼리만 피하고.
뭐래~ 몇번을 얘기해도 못들었으면서
너흰 알고 피한거야?
네.
이거구나…
조심해. 일상의 근심으로 마음이 눌러지지 않게.
루카21,34
어려움이 닥칠때
주님앞에 설수 있는 힘을 지니도록
힘!
늘 깨어 기도하여라

희망으로 구원된 우리

Spe Salvi

가톨릭대학교 성신교정 교수
전인걸 요한보스코 신부

C.Y.A 친구들 한 해의 마지막 달 12월이 되었어요. 한 해의 마지막을 향하는 가운데 교회는 새로운 전례주기를 시작해요. 바로 대림시기이지요. 대림 시기는 '도착'을 뜻하는 라틴어 '아드벤투스(Adventus)'에서 온 것인데,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이미 오셨음을 기억하고, 또한 다시 오실 그분을 기다리는 기간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인 우리는 왜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려야하는 것일까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믿는 구원자이시기 때문이에요. **구세주는 마지막 날 우리에게 오셔서 평화와 영원한 생명을 주실 분이지요**. 이번에 소개할 문헌은 이와 관련된 희망에 대해 말씀하신 베네딕도 16세 교황님의 회칙 **'희망으로 구원된 우리'**에요.



출처 : 한국 천주교 주교회의

C.Y.A 친구들은 어떤 희망을 가지고 있나요? 예측할 수 없는 미래 앞에, 내가 목표하고 있는 지점에 어떻게 도달할 수 있을까?' '과연 문제없이 잘 해낼 수 있을까? 고민이 많을 거라고 생각해요. 끊임없는 경쟁주의, 인간마저 수단과 도구로 보는 생명경시 풍조, 기온상승으로 인한 환경 위기는 우리의 미래를 더욱 두렵게 만드는 것도 사실이에요. 교황님께서는 잃어버린 희망을 어디서 찾아야 하는가? 라는 질문 앞에서 세상의 모든 문제는 오로지 인간적인 해결과 노력만으로는 극복될 수 없다고 말씀하세요. **세상의 위기는 신앙의 위기이며 하느님을 믿지 못하고, 스스로만 해결하려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는 희망을 찾을 수 없다는 것**이지요. 과연 세상이 바라봐야 할 그리스도교적 희망은 무엇일까요? 교황님께서는 그 **희망의 토대가 바로 하느님에게서 온다고 말씀**하십니다.(24-31항) 주님만이 희망의 본질이며 참된 삶의 보증이 된다는 것이지요.

교황님께서는 참된 희망을 만들어가기 위해서 여러 방법을 우리에게 제안하세요. **첫 번째로 기도를 말씀하십니다.** 기도는 우리에게 희망을 가져다줍니다.
왜냐하면, 그 누구도 나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것 같은데
하느님께서는 우리가 기도 하면 귀 기울여 주시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교황님께서는 기도는 희망을 배우는 중요한 자리이자 학교라고 말씀하십니다.(32-34항)

베네딕도 16세
출처 : 아베니레

두 번째 희망을 배우는 자리는 바로 활동과 고통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활동을 통해 하느님의 협력자로서 세상 구원에 이바지할 수 있어요. 우리가 타인의 고통에 함께하고, 도움을 준다면 결국 그 행위들은 돌고 돌아 우리에게 온다는 것이지요. 그렇게 희생하고 참아내는 과정을 통해 오는 것이 고통이라면 이 또한 희망을 품게 하는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이때 느껴지는 고통은 하느님께서 주시는 사랑을 통해 가능한 일이 되기 때문이에요.(35-40항)

마지막으로 교황님께서는 희망을 느낄 수 있는 자리는 바로 심판이라고 말씀하세요. 심판을 생각하면 우리는 아주 엄하고, 무섭고, 두려운 것으로 생각하게 되요. 하지만 주님의 심판은 당신만의 새로운 정의를 실현하시고 그 방식은 바로 사랑과 은총이 될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도 삶 안에서 서로 간에 심판하지 말고 용서하고 살아가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41-48항)

교황님께서는 회칙의 마지막 부분에 우리가 희망의 어머니이신 성모님을 바라봐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성모님은 어려운 상황에서도 모든 그리스도인 삶의 모범이셨고 또 먼저 승천되셔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 전구해 주실 분이기 때문이지요.

우리 C.Y.A 친구들과 올해 동안 여러 교황님들께서 반포하신 문헌을 살펴보며, 교황님들께서 우리에게 보내시고자 하는 메시지를 선정해 살펴보았어요. 교황님께서는 그리스도의 대리자로서 우리를 주님께로 이끄시고 모으는 일을 하시는 분이세요. 앞으로 계속해서 우리 C.Y.A 친구들 모두 미디어 매체를 통해 전달되는 교황님 말씀을 잘 듣고, 그리스도를 전하는 희망의 신앙인이 되기를 바라고 기도할게요.

복음자리

2024년 12월 1일 | 대림 제1주일
(루카 21,25-28.34-36)

너희의 속량이 가까웠다. (루카 21, 28)

새겨보기

오늘은 대림 제1주일입니다. 대림 시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탄을 준비하고 그분의 재림을 기다리는 희망의 시기입니다.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는 종말의 징조와 그날을 대비하는 자세에 대해 가르치신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은 해와 달, 별들이 이상한 징조를 보이고, 바다와 파도가 거세게 일어나며 사람들은 공포에 휩싸일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이 혼란에 빠질 때, 사람들은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예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허리를 펴고 머리를 들어라.', 즉 두려워하지 말고 희망을 가지라고 하십니다. 이는 구원의 날이 가까워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날이 갑자기 찾아와 당황하지 않도록, 스스로를 잘 다스리고 정신을 흐트러뜨리지 않도록 경고하십니다. 그리고 그날은 모든 사람에게 찾아올 것이기 때문에 항상 깨어 기도하며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당부하십니다. 오늘 복음은 우리가 대림 시기 동안 어떻게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하는지를 알려줍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종말의 징조들은 우리가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구원이 가까워졌음을 알리는 희망의 신호입니다. 신앙은 미래의 막연한 두려움이 아닌 주님께서 오실 날을 기다리며 희망과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날을 기다리며,
매일의 삶 속에서 하느님께 깨어 있나요?

STEP 1. 오늘 복음 내용이 뜻하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STEP 2. 내 삶을 오늘 복음에 비추어 생활 속 이야기를 써보아요.

STEP 3. 주님께 바치는 나의 기도나 구체적인 실천 사항을 적어보아요.